

장애부모 아동과 일반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부모관련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학교적응*

Children's Parent-related Stress,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Self-esteem of Children with Handicap & Nonhandicap Parents

김기예 · 이소은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Kim Kiye · Lee So Eu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in parent-related stress,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self-esteem of children with disabled and non-disabled par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76 students between 4th and 6th grade in Chungbuk area. For a data analysis, mean, frequency, percent, thre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were used. The results show that children's perceived parent-related stress,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are varied according to their self-esteem. Those with higher self-esteem were found to have higher perception level in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On the contrary, they were found to have lower level in parent-related stress. The findings indicate further that girls have a closer relationship with their teachers than boys and that children with disabled parents have a closer relationship with their teachers than those with non-disabled parents. However, as opposed to prediction, parental disability itself caused no difference in the level of parent-related stress.

Key Words : parent-related stress, social support, school adjustmen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적응력이 높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연구자들은 성인기 이전에 일파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적응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아동기는 구체적 조작이 가능한 시기로 아동기의 적응양상은 청소년기 이후의 적응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근래에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감 증진을 위하여 장애 아동이나 입양 아동, 일시 보호 시설의 수용된

아동, 빈곤 지역의 아동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동에게로(오승아, 이양희, 2001; 유안진, 민하영, 2001; 이순형, 이강이, 성미영, 2000) 사회적 관심이 전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 부모를 둔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미흡한 편으로 이는 장애부모 아동의 현황 파악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의 보고에 따르면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고, 경제활동의 중심 연령대며 학령기 자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0-40대 남성의 장애발생율이 가장 높고, 원인은 교통사고나 산재 등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부모는 신체적 고통 외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 공황, 가족관계의 위기 등과 같은 다양한 가족문제를 경험(권선진, 1999; 박현순, 이훈진, 조용래, 원호택,

* 이 논문은 2004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ant in 2004)

Corresponding author: Lee So Eun

Tel: 043) 261-2795

E-mail: soeunl@hanmail.net

1993)하며, 장애부모의 심리 상태는 같이 생활하는 자녀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장애부모 아동은 일반 아동과 상이한 심리·사회적 적응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장애부모 아동에 대한 정책은 부모를 통한 교육비 지원이라는 물리적 지원에 국한되어 있을 뿐 학령기 장애부모 아동에 대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예측하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책지원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장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UN, 1989)가 있으며, 심리·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실시를 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장애부모 아동이 경험하는 적응양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느끼는 대표적인 정서적 긴장감으로 심리적 복지감의 정도를 진단하는 대표적인 지표(한미현, 유안진, 1996; Dobow, Tisak, Causey, Hryshko, & Ried, 1991)로 아동의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다.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조사한 연구(민하영, 유안진, 1999; 한미현, 유안진, 1995)에서 아동이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동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으로 장애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장애부모 아동의 경우 부모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에 따른 정서적 긴장(이미옥, 2000), 장애로 인해 부모가 보이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자신감 상실(Helena & Lucy, 2003; Lee, 2000), 낮은 고용률에 의한 경제적 빈곤(김경화, 1999), 부모의 장애로 인한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부족(강민희, 1998) 등 장애부모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더 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부모 아동의 경우에는 이들의 부모관련 스트레스 실태조차도 아직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구자들(Gecas, 1971; Harter, 1982)은 개개인의 적응 또는 행동문제를 유발하는 스트레스와 개개인의 적응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변수인 스트레스 대처자원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에 관심을 두고 있다. 긍정적인 또래관계와 교사관계 등의 사회적 지지체계는 학교에서의 균형된 심리사회적 적응을 이끄는 주요요소(Compas, 1987)로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중되며, 가치 있다고 여기며 의사소통 관계망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자원이다(Cobb, 1976).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평가와 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수준을 완화하고 부적응 행동의 발현을 감소시키는데 공헌(한미현, 유안진, 1996)을 한다. 즉 개인

이 구축하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 사회적 지지는 달라지므로 부모의 장애여부는 자녀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추론된다.

장애부모 아동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해서 아동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으로 적응상의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교사나 친구와 같은 새롭고 다양한 관계가 맺어지는 사회관계의 장인 학교에서의 적응이 분석되어야 한다. 학교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학교적응력이 높은 아동은 학업성취가 높고(Rafferty & Shinn, 1991; Simons-Morton & Crump, 2003), 낮은 약물중독의 위험성 및 반사회적 행동 경향성(Simons-Morton & Crump, 2003)을 보이며, 가정의 불화와 빈곤 등은 아동의 학교태도나 적응 및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김연주, 1996; 정병태, 1998)고 보고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생활 및 성취여부는 이후의 사회적응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므로(Bates, Luster, & Vandenberg, 2000), 부모의 장애로 인해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등 가정 내의 불안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장애부모 자녀는 일반아동에 비해 학교적응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시설아동이나 이혼가정 아동과 달리 장애부모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 또는 판단의 지표인 동시에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적응수준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인 자아존중감(Harter, 1982)에 의해 아동의 적응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는 부모-자녀 관계의 친밀감 정도가 중요한 요인(Dickstein, 1977)으로 지적되는데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정도는 어떤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 자신의 능력을 맘껏 발휘하고(Campbell, 1990), 매우 적응적이며(장희순, 이영, 1990), 학교생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차유림, 2001), 낮은 질병발병 및 약물중독(Brockner & Hulton, 1987)의 특성을 보인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우울증 발병률이 높고(Harter, 1989; Rosenberg, 1985), 집단에 참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판단과 능력에 대해 회의적(Coopersmith, 1967)이며,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한다(이지연, 2002; Brenner, 1984)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따라 일상적 적응수준이 달라진다고 보고함으로써 아동의 적응을 살펴보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변수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적응

력은 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들로 양분되고 있다. 이혼이나 생활사건(Bolger, Patterson, Thomson, & Kupersmidt, 1995;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과 같은 변화에는 대체로 여아가 적응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모의 장애유무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아동의 성을 함께 고려하여 이들 간의 상호작용효과의 존재여부를 검증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아 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스트레스나 지원, 적응 등의 변수를 인식하고 응답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경험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장애유무, 자아존중감 및 성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아동의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장애유무, 자아존중감 및 성에 따라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 정도는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의 장애유무, 자아존중감 및 성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 정도는 차이가 있는가?
3. 부모의 장애유무, 자아존중감 및 성에 따라 아동의 학교적응에는 차이가 있는가?
4. 아동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부모관련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부모의 장애유무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가운데 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장애부모 아동과 일반아동 17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장애부모의 자녀를 표집하기 위해 15개 초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한 후 담임교사를 통해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체장애가 있는 아동을 파악한 후 부모의 장애발생 시점이 1년 이상 경과하여 장애부모의 외상후 장애가 완화(Brom, Kleber, & Hofman, 1993)된 것으로 추정되는 88명을 표집하였다. 한편 일반아동은 청주시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가운데 중산층 지역에 해당하는 2개 초등학교의 고학년 생 중에서 88명을 우선표집하였다. 표집된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일과가 끝난 후 담임교사의 감독 하에 질문지를 완성한 후 회수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구성을 보면 남아가 48%(85명), 여아가 52%(91명)였다. 학년에 따라서는 4학년이 23%(40명), 5학년이 30%(53명), 6학년이 47%(83명)였으며, 부모의 장애유무에 따라 장애부모 아동과 장애가 없는 부모 아동이 각각 50%(44명)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기술직이 53%(93명)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20%(35명), 전문·자유직 12%(2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직업은 취업모가 56%(99명), 전업주부가 40%(71명), 기타 4%(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아버지가 대졸이상이 57%(101명), 고졸이하가 39%(68명)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는 고졸이하가 64%(112명), 대졸이상이 33%(58명)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1) 부모관련 스트레스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개발한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 중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부모-관련 스트레스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지각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검사결과 Cronbach's α 값은 .88이었다.

2) 사회적 지원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Harter(1985)가 개발하고, 조윤주(2001)가 사용한 사회적 지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부모지원, 친구지원, 교사지원으로, 영역별로 8문항씩 총 2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사회적 지원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에 대한 신뢰도 검사결과 Cronbach's α 값은 부모지원 .75, 교사지원 .81, 그리고 친구지원은 .88이었다.

3) 자아존중감

아동이 지각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차유림(2001)이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검사결과

Cronbach's α 값은 .82였다.

4) 학교적응

학교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전재전(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및 학교규칙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별로 8문항씩 총 32개 문항 4점 리커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에 대한 신뢰도 검사결과 Cronbach's α 값은 각각 교사관계 .73, 교우관계 .71, 학교수업 .69, 그리고 학교규칙은 .64로 나타났다.

3.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사용하였고, 부모의 장애유무, 자아존중감 및 아동의 성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학교적응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 점수를 평균을 중심으로 상·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 부모관련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는 피어슨의 적률상관관계로 살펴보았다.

III. 결과 및 해석

1. 부모의 장애유무, 자아존중감 및 성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부모의 장애유무, 자아존중감 및 성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을 산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전반적 인식은 1점에서 4점까지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는 2.05점이었다. <표 1>에서 보면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장애부모 아동보다 일반아동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미미했다(장애:1.98, 일반:2.12). 자아존중감에 수준에 따른 차이는 보다 명확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이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상:1.93, 하:2.16), 성

<표 1> 부모의 장애유무, 자아존중감 및 성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관련스트레스의 평균

구분	부모 장애	성	N	자아존중감		전체(176)
				상(97)	하(79)	
				M(SD)	M(SD)	M(SD)
부모관련 스트레스	유	남	43	1.94(.49)	2.05(.69)	1.99(.59)
		여	45	1.81(.56)	2.15(.54)	1.97(.57)
		전체	88	1.87(.53)	2.10(.61)	1.98(.58)
	무	남	42	2.06(.41)	2.02(.40)	2.05(.40)
		여	46	2.03(.68)	2.36(.42)	2.19(.58)
		전체	88	2.04(.54)	2.23(.44)	2.12(.51)
전체	남	85	2.01(.45)	2.04(.58)	2.02(.50)	
	여	91	1.92(.62)	2.26(.49)	2.08(.58)	
	전체	176	1.93(.54)	2.16(.54)	2.05(.55)	

에 따른 차이는 미미하였다(남아:2.02, 여아:2.08).

다음으로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부모의 장애유무, 자아존중감 및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F=5.11$, $p<.05$),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이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을 긍정적으로 하는 등 심리적 탄력성이 높아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낮게 평가함으로써 대인관계를 왜곡하여 부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부모의 장애유무와 성에 따라서는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2> 부모의 장애유무, 자아존중감 및 성에 따른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삼원변량분석

구분	SSE	df	MSE	F	
부모장애 유무(A)	.70	1	.70	2.43	
자아존중감(B)	1.46	1	1.46	5.11*	
부모 관련 스트레스	아동의 성(C)	.20	1	.20	.68
A*B	.06	1	.06	.23	
A*C	.30	1	.30	1.03	
B*C	.89	1	.89	3.12	
A*B*C	.06	1	.06	.23	

* $p<.05$

2. 부모의 장애유무, 자아존중감 및 성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

<표 3>에서 부모의 장애유무, 자아존중감 및 성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 정도의 전반적 경향을 보기 위해 평균을 산출한 결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아동의 전반적 인식은 1.58점에서 4점까지로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가 2.97점으로 '그렇다'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다. 사회적 지원의 각 하위변인에 대한 인식은 1.13점에서 4점까지였으며 부모지원의 평균 점수는 3.07, 친구지원의 평균 점수는 3.25로 '그렇다'는 경향을 보인 반면 교사지원

의 평균 점수는 2.61로 교사지원에 대한 인식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장애 유무에 따라 전체 사회적 지원(장애:3.01, 일반:2.93)과 사회적 지원의 하위변인(부모지원-장애:3.11, 일반:3.03; 교사지원-장애:2.70, 일반: 2.51; 친구지원-장애:3.24, 일반:3.26)에 대한 지각은 일반아동보다 장애부모의 아동이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아동의 인식을 살펴 보면 전체 사회적 지원(상:3.15, 하:2.76)과 하위영역(부모 지원-상:3.24, 하:2.86, 교사지원-상:2.72, 하:2.46, 친구지원-상:3.47, 하:2.97)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의 지각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성에 따른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 차이는 미미하였으나(남아:2.95, 여아:3.00), 교사지원(남아:2.53, 여아:2.68)에 대한 인식은 여아의 인식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이 부모의 장애유무, 부모 관련 스트레스 및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부모의 장애유무, 자아존중감 및 성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의 평균

구분	부모 장애	성	N	자아존중감		전체(176) M(SD)	
				상(97)	하(79)		
				M(SD)	M(SD)		
전체	유	남	43	3.11(.49)	2.85(.36)	2.98(.45)	
		여	45	3.32(.37)	2.74(.50)	3.05(.52)	
		전체	88	3.22(.44)	2.79(.43)	3.01(.48)	
	무	남	42	3.04(.30)	2.69(.37)	2.92(.36)	
		여	46	3.13(.45)	2.76(.30)	2.95(.42)	
		전체	88	3.08(.37)	2.73(.33)	2.93(.39)	
	전체	남	85	3.07(.39)	2.78(.37)	2.95(.41)	
		여	91	3.23(.42)	2.75(.40)	3.00(.47)	
		전체	176	3.15(.41)	2.76(.38)	2.97(.44)	
	부모 지원	유	남	43	3.24(.51)	2.98(.53)	3.11(.53)
			여	45	3.34(.50)	2.83(.47)	3.10(.54)
			전체	88	3.29(.50)	2.90(.50)	3.11(.53)
무		남	42	3.16(.36)	2.86(.44)	3.06(.41)	
		여	46	3.32(.59)	2.78(.42)	3.01(.55)	
		전체	88	3.19(.48)	2.81(.42)	3.03(.49)	
전체		남	85	3.29(.54)	2.80(.44)	3.09(.47)	
		여	91	3.20(.43)	2.93(.49)	3.05(.55)	
		전체	176	3.24(.49)	2.86(.46)	3.07(.51)	
교사 지원		유	남	43	2.66(.56)	2.51(.46)	2.58(.51)
			여	45	2.99(.50)	2.58(.46)	2.80(.52)
			전체	88	2.83(.55)	2.54(.46)	2.70(.53)
	무	남	42	2.51(.45)	2.37(.50)	2.46(.47)	
		여	46	2.75(.59)	2.36(.51)	2.56(.58)	
		전체	88	2.62(.53)	2.37(.50)	2.51(.53)	
	전체	남	85	2.58(.50)	2.45(.47)	2.53(.49)	
		여	91	2.88(.55)	2.47(.50)	2.68(.56)	
		전체	176	2.72(.55)	2.46(.48)	2.61(.53)	
	친구 지원	유	남	43	3.43(.58)	3.06(.54)	3.25(.58)
			여	45	3.61(.40)	2.80(.80)	3.23(.73)
			전체	88	3.52(.49)	2.93(.69)	3.24(.66)
무		남	42	3.44(.42)	2.85(.51)	3.24(.52)	
		여	46	3.42(.57)	3.12(.54)	3.27(.57)	
		전체	88	3.43(.48)	3.02(.53)	3.26(.54)	
전체		남	85	3.43(.49)	2.98(.53)	3.24(.55)	
		여	91	3.52(.49)	2.97(.69)	3.25(.65)	
		전체	176	3.47(.49)	2.97(.62)	3.25(.60)	

<표 4> 부모의 장애유무, 자아존중감 및 성에 따른 사회적 지원의 삼원변량분석

구분	SSE	df	MSE	F
부모장애유무(A)	.41	1	.41	2.58
자아존중감(B)	6.48	1	6.48	41.25***
아동의 성(C)	.18	1	.18	1.17
A*B	.04	1	.04	.22
A*C	.01	2	.01	.07
B*C	.32	1	.32	2.04
A*B*C	.22	2	.22	1.39
부모장애유무(A)	.33	11	.33	1.43
자아존중감(B)	6.25	1	6.25	27.16***
아동의 성(C)	.00	1	.00	.02
A*B	.00	1	.00	.01
A*C	.00	2	.00	.02
B*C	.43	1	.43	1.86
A*B*C	.03	2	.03	.13
부모장애유무(A)	1.47	11	1.47	5.75*
자아존중감(B)	3.17	1	3.17	12.40**
아동의 성(C)	1.13	1	1.13	4.43*
A*B	.00	1	.00	.01
A*C	.08	2	.08	.31
B*C	.64	1	.64	2.51
A*B*C	.00	2	.00	.01
부모장애유무(A)	.01	11	.01	.05
자아존중감(B)	11.28	1	11.28	37.48***
아동의 성(C)	.09	1	.09	.29
A*B	.22	1	.22	.71
A*C	.28	2	.28	.93
B*C	.06	1	.06	.20
A*B*C	1.41	2	1.41	4.7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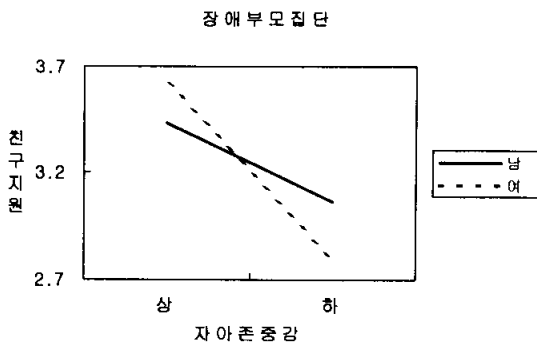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지원의 하위변인 중 교사지원은 부모의 장애유무에 따라서 차이를 보여($F=5.75, p<.05$) 장애부모 아동이 교사지원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장애부모 아동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거나 대처를 강화해주기에 장애부모 아동이 교사지원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에 따라서도 아동의 교사지원 지각에서 차이가 나타났다($F=4.43,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아보다 여아가 교사의 지원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과정에서 여아는 성인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남아는 독립적 수행을 강조하는 양육태도가 교사와의 관계에 반영된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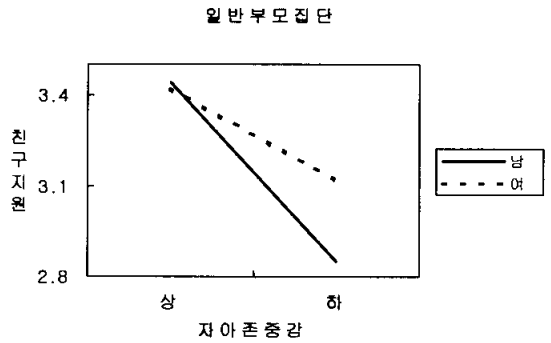
한편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서는 전체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지각($F=41.25, <.001$) 및 부모지원($F=27.16, p<.001$), 교사지원($F=12.40, p<.01$), 친구지원($F=37.48, p<.001$)에서 모두 차이를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의 아동이 낮은 집단의 아동에 비해 사회적 지원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맥을 같이하여 자신을 보다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는 아동일수록 타인이 제공하는 지원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부모장애유무, 자아존중감 및 성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친구지원에서 나타났다($F=4.70, p<.05$).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아동이 지각하는 친구지원은 전반적으로 부모의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의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서 장애부모 집단의 경우 자아존중감에 따른 친구지원에 대한 인식차는 여아가 남아보다 두드러진 반면 <그림 2>의 일반부모 집단의 경우 자아존중감에 따른 친구지원에 대한 인식차는 남아가 여



[그림 1] 친구지원에서 부모의 장애유무 자아존중감 및 성간의 상호작용



[그림 2] 친구지원에서 부모의 장애유무 자아존중감 및 성간의 상호작용

아보다 두드러졌다. 이는 여아의 경우 부모에게 장애가 있고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부모의 장애라는 외적 요인과 낮은 자아존중감이라는 내적 요인이 가중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또래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고립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아와 달리 남아는 부모의 장애보다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또래와의 관계에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부모의 장애유무, 자아존중감 및 성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

부모의 장애유무, 자아존중감 및 성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아존중감 점수를 상·하 두 집단으로 나눈 후 평균을 산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적응에 대한 아동의 전반적 인식은 1.91점에서 3.72점까지였으며 평균 점수는 2.97점으로 '그렇다'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다. 학교적응의 각 하위변인에 대한 인식은 1.38점에서 3.88점까지였으며 교우관계의 평균 점수는 2.89, 학교수업의 평균점수는 2.79점으로 '다소 그렇다'에 가까웠으나 학교규칙의 평균 점수는 2.57점으로 교우관계에 관한 적응정도가 가장 높고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의 학교적응은 부모의 장애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장애:2.75, 일반:2.73). 이를 각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교우관계(장애:2.86, 일반:2.91), 학교수업(장애:2.79, 일반:2.79) 및 학교규칙(장애:2.54, 일반:2.60)에서의 차이는 미미했으나 교사와의 관계는 장애부모의 자녀가 일반아동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2.81, 일반:2.61).

<표 5> 부모의 장애유무, 자아존중감 및 성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학교적응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부모 장애	성	N	자아존중감		전체(176) M(SD)
				상(97) M(SD)	하(79) M(SD)	
학교 적응	유	남	43	2.90(.31)	2.60(.34)	2.75(.36)
		여	45	2.89(.37)	2.56(.24)	2.74(.35)
		전체	88	2.90(.34)	2.58(.29)	2.75(.35)
	무	남	42	2.77(.32)	2.54(.22)	2.70(.31)
		여	46	2.90(.39)	2.61(.31)	2.75(.38)
		전체	88	2.83(.36)	2.58(.28)	2.73(.35)
전체	남	85	2.83(.32)	2.57(.30)	2.73(.33)	
	여	91	2.90(.37)	2.59(.28)	2.75(.37)	
	전체	176	2.86(.35)	2.58(.28)	2.74(.35)	
교사 관계	유	남	43	2.84(.49)	2.60(.52)	2.72(.51)
		여	45	3.04(.43)	2.73(.28)	2.89(.39)
		전체	88	2.94(.47)	2.66(.42)	2.81(.46)
	무	남	42	2.56(.56)	2.48(.38)	2.53(.50)
		여	46	2.77(.59)	2.57(.45)	2.67(.53)
		전체	88	2.65(.57)	2.54(.42)	2.61(.51)
전체	남	85	2.68(.54)	2.55(.46)	2.63(.51)	
	여	91	2.91(.52)	2.64(.38)	2.78(.48)	
	전체	176	2.79(.54)	2.60(.42)	2.71(.50)	
교우 관계	유	남	43	3.05(.40)	2.77(.45)	2.91(.44)
		여	45	2.98(.48)	2.60(.64)	2.81(.58)
		전체	88	3.02(.44)	2.68(.55)	2.86(.52)
	무	남	42	3.09(.47)	2.63(.24)	2.94(.46)
		여	46	3.03(.56)	2.76(.48)	2.89(.53)
		전체	88	3.06(.51)	2.71(.41)	2.91(.50)
전체	남	85	3.07(.43)	2.71(.38)	2.93(.45)	
	여	91	3.01(.52)	2.68(.56)	2.85(.56)	
	전체	176	3.04(.47)	2.70(.49)	2.89(.51)	
학교 수업	유	남	43	3.04(.34)	2.65(.45)	2.85(.44)
		여	45	2.94(.50)	2.48(.39)	2.73(.51)
		전체	88	2.99(.43)	2.57(.42)	2.79(.48)
	무	남	42	2.88(.43)	2.64(.36)	2.80(.42)
		여	46	2.97(.55)	2.59(.42)	2.78(.52)
		전체	88	2.92(.48)	2.61(.39)	2.79(.47)
전체	남	85	2.95(.40)	2.65(.41)	2.83(.43)	
	여	91	2.96(.52)	2.54(.41)	2.75(.51)	
	전체	176	2.95(.46)	2.59(.41)	2.79(.47)	
학교 규칙	유	남	43	2.69(.39)	2.37(.53)	2.53(.48)
		여	45	2.61(.45)	2.45(.30)	2.54(.39)
		전체	88	2.65(.42)	2.41(.43)	2.54(.44)
	무	남	42	2.58(.36)	2.39(.43)	2.51(.39)
		여	46	2.84(.49)	2.51(.35)	2.67(.45)
		전체	88	2.69(.44)	2.46(.38)	2.60(.43)
전체	남	85	2.63(.37)	2.38(.49)	2.53(.44)	
	여	91	2.72(.48)	2.48(.33)	2.60(.43)	
	전체	176	2.67(.43)	2.44(.41)	2.57(.43)	

반면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차이는 보다 뚜렷해 전체 학교적응(상:2.86, 하:2.58) 및 모든 하위영역(교사관계-

상:2.79, 하:2.60; 교우관계-상:3.04, 하:2.70; 학교수업-상:2.95, 하:2.59; 학교규칙-상:2.67, 하:2.44)에서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적응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학교적응은 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남아:2.73, 여아:2.75),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교사관계(남아:2.63, 여아:2.78)와 학교규칙(남아:2.53, 여아:2.60)에서는 여아가, 교우관계(남아:2.93, 여아:2.85)와 학교수업(남아:2.83, 여아:2.75)은 남아의 적응력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아동의 학교적응이 부모의 장애유무, 자아존중감 및 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부모의 장애유무, 자아존중감 및 아동의 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삼원변량분석

	구분	SSE	df	MSE	F
학교 적응	부모장애유무(A)	.05	1	.05	.48
	자아존중감(B)	3.65	1	3.65	34.99***
	아동의 성(C)	.06	1	.06	.59
	A*B	.03	1	.03	.02
	A*C	.16	1	.16	1.49
	B*C	.02	1	.02	.17
	A*B*C	.00	1	.00	.04
교사 관계	부모장애유무(A)	1.75	1	1.75	7.68**
	자아존중감(B)	1.82	1	1.82	8.00**
	아동의 성(C)	1.07	1	1.07	4.71*
	A*B	.20	1	.20	.87
	A*C	.00	1	.00	.01
	B*C	.10	1	.1	.45
	A*B*C	.01	1	.01	.04
교우 관계	부모장애유무(A)	.03	1	.03	.13
	자아존중감(B)	5.20	1	5.20	22.22***
	아동의 성(C)	.07	1	.07	.32
	A*B	.01	1	.01	.05
	A*C	.24	1	.24	1.01
	B*C	.02	1	.02	.07
	A*B*C	.21	1	.21	.88
학교 수업	부모장애유무(A)	.00	1	.00	.01
	자아존중감(B)	5.69	1	5.69	29.55***
	아동의 성(C)	.14	1	.14	.72
	A*B	.15	1	.15	.79
	A*C	.28	1	.28	1.44
	B*C	.14	1	.14	.73
	A*B*C	.01	1	.01	.06
학교 규칙	부모장애유무(A)	.09	1	.09	.54
	자아존중감(B)	2.63	1	2.63	15.16***
	아동의 성(C)	.37	1	.37	2.13
	A*B	.00	1	.00	.02
	A*C	.37	1	.37	2.14
	B*C	.00	1	.00	.01
	A*B*C	.27	1	.27	1.52

*p<.05, **p<.01, ***p<.001

먼저 부모의 장애유무에 따라 아동의 학교적응은 교사 관계에서 차이를 보여(F=7.69, p<.01), 장애부모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교사와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장애부모 자녀를 심리적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줌으로써 더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동의 학교적응은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학교적응 및 (F=34.99, p<.001) 교사관계(F=8.00, p<.01), 교우관계(F=22.22, p<.001), 학교수업(F=29.55, p<.001) 및 학교규칙(F=15.16, p<.001)에서 모두 차이를 보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심리적 탄력성이 높고 보다 적응적이므로 상호작용 대상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고 수업에 대한 집중력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이 학교생활에 있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이지연, 2002; 차유림, 2001)와 맥을 같이한다.

성에 따라서는 학교적응의 하위변인 중 교사관계에서 차이를 보여(F=4.71, p<.05), 여아가 남아보다 교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의 지도방법은 도구적 속성을 강조하면서 양육되는 남아보다 표현적 속성이 강조되는 여아 대한 양육태도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여아가 남아보다 교사의 요구에 더 잘 순종하고 반응한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심리적 지지대상으로 교사를 선호(이경, 2004)한다는 연구를 지지한다.

4. 자아존중감, 부모관련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학교 적응간의 관계

자아존중감, 부모관련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학교 적응의 관계는 <표 7>과 같이 피어슨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각 변인들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17에서 .82 사이로 나타났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원 및 학교적응과 모두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사회적 지원 인식과 학교적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원(r=.53, p<.01) 및 학교적응(r=.55, p<.01) 간의 관계는 정적인 경향을 보여 아동이 자신을 가치롭게 인식할수록 사회적 지원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학교적응력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지원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도 정적상관을 보였다(r=.74, p<.01). 이는 부모, 교사, 친구 등 아동이 관계를 맺는 인적 자원들의 지원감을 아동이 높게 인식할수록 학교적응 또한 높은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교사와 친구로 이원화된 대인관계로 구성된 학교생활을 고려할 때 아동이 교사와 친구 양자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전반적 학교적응이 보다 수월하게 된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표 7> 부모관련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학교적응간의 상관관계

	자아 존중감	부모관련 스트레스	부모 지원	교사 지원	친구 지원	사회적 지원	교사 관계	교우 관계	학교 수업	학교 규칙
부모관련스트레스	-.20**									
부모지원	.42**	-.46**								
교사지원	.38**	-.32**	.53**							
친구지원	.46**	-.20**	.46**	.42**						
사회적 지원	.53**	-.40**	.81**	.80**	.80**					
교사관계	.26**	-.24**	.40**	.79**	.26**	.59**				
교우관계	.48**	-.23**	.40**	.39**	.78**	.67**	.24**			
학교수업	.52**	-.23**	.41**	.49**	.36**	.52**	.45**	.44**		
학교규칙	.37**	-.17*	.31**	.33**	.25**	.37**	.36**	.30**	.52**	
학교적응	.55**	-.30**	.52**	.69**	.57**	.74**	.70**	.69**	.82**	.72**

*p<.05, **p<.01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장애유무, 자아존중감 및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관련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학교적응에 대한 아동의 인식 및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학교적응에 관한 아동의 전반적인 인식에서 부모의 장애유무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회적 지원의 하위영역인 교사지원과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인 교사관계에서는 장애부모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교사의 지원을 더 만족스럽게 지각하며 관계 또한 보다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장애 부모와 생활하는 아동은 우울 성향이 높고(Campbell, Cohn, & Meyers, 1995), 교우관계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는 등(정선영, 1990) 부적응 문제 출현의 소지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와 달리 학령기 아동의 적응이 부모의 장애와 무관함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교사지원 및 교사관계에 대한 인식이 장애부모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긍정적이란 점이다. 이는 교사가 장애부모 아동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배려해주며, 행동의도를 가지고 장애부모아동을 세심하게 보살피 이들이 처한 심리적, 환경적 변화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지도 감독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교사의 적절한 지도감독과 지지는 아동의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Heller, Swindle, & Dusenbury, 1986; Thoits, 1985), 사회적 유대를 결속하게 한다(Ainsworth, 1982; Bowlby, 1980)는 보고에 의해 지지된다. 부모의 장애유무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학교적응을 살펴본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 어렵지만 일시적으로 위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애부모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력 신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지원은 교사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예상한 바와 달리 부모의 장애유무에 따라 부모지원에 대한 아동의 인식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장애부모는 자녀에게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강조한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부모 아동이 부모지지를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고가 가족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한편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의 결속력 등 돈독한 정서적 유대감의 경험을 제공(박현순, 이훈진, 조용래, 원호택, 1993)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또한 장애부모를 지체장애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및 장애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부모관련 스트레스, 사

회적 지원 및 학교적응에 대한 아동의 인식 차이는 보다 뚜렷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보다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덜 지각하고, 전반적인 사회적 지원과 학교적응 및 이들의 각 하위영역에 대한 인식은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신장시키고 적응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학교생활이 긍정적이고(유복귀희, 2003), 적응력이 높고(한미현, 유안진, 1996; Cohen & Wills, 1985), 또래와의 친밀감이 강하며(김문혜, 1999; Dubow et al., 1990), 사회적 지원을 긍정적으로 지각한다(이경아, 정현희, 1999)는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즉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아동은 심리적 탄력성이 높아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 부모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낮게 지각하고, 부모, 교사, 친구 등 사회적 지지원은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경에 대한 높은 적응력을 보이므로 학교에 대한 적응력 또한 우수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아동이 보다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소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와 교사가 아동을 지지해주고, 가치로운 존재로 인식하게 하고, 주변의 지원을 활용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등 심리적 부적응에 대처하도록 지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아동의 성에 따라서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및 전반적인 사회적 지원과 학교적응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성과 같은 생물학적 차이보다는 아동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심리적 적응이나 불안이 아동의 학교적응력을 설명해주는 변수임을 시사한다. 이런 결과는 성에 따라 학교적응이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김선해(2002)의 연구결과와 남아의 학교적응력이 여아보다 높다는 선행연구(배숙진, 1998; 정은진, 2002)와는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생물학적 차이가 아동의 학교적응력을 설명해주는 변수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에 있어서는 남아보다 여아가 교사의 지원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학교적응에서는 남아보다 여아가 교사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교사관계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이경, 2004)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심리적 특성상 여아는 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을, 남아는 회피적 대처와 기분전환적 대처행동을 많이 한다(서영미, 2001)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아가 지원을 더 잘 요구하고 그로 인해 더 적응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결과는 환경적 조건에 대한 적응능력이 남아보다 여아가 뛰어나다(Bolger, Patterson, Thomson, & Kupersmidt, 1995; Ladd et al., 1996)는 연구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자아

가치가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문은정, 심희옥, 2001)는 연구에 의해 지지된다.

한편 사회적 지원의 하위변인 중 친구지원에서 부모장애 유무, 자아존중감 및 성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부모의 장애와 관계없이 또래에게 잘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의 경우 여아는 부모가 장애가 있는 경우, 남아는 부모가 장애가 없는 경우 친구지원 지각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관계는 정서적 안정감, 친밀감, 신뢰감, 자아가치의 인정 등을 제공하고(Ladd et al., 1996), 부적응에 대한 완충효과가 있고(Newcomb & Bagwell, 1996),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며(Coie, Dodge, & Kupersmidt, 1990), 학교적응을 예측(Berndt, 1999)하는 기능이 있다. 결과적으로 친구지원을 낮게 인식하는 아동은 친구지원을 높이 지각하는 아동에 비해 학교에서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가정과 학교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남아와 부모에게 장애가 있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여아가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넷째, 자아존중감, 부모관련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아동은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고, 사회적 지원은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학교적응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특히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아동은 학교에 보다 적응적인 경향을 보였다. 즉 아동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주변의 도움 또한 긍정적으로 지각하므로 부모와 관련된 스트레스에는 둔감하고 교사 및 친구들과의 관계와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정도가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일상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사회적 지원 인식이 낮아 부모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할 뿐 아니라 역할 수행성을 획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조운주, 2003), 학교적응이 낮다(김광영, 1999; 이지연, 2002)는 연구에 의해 지지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덜 받고(이지연, 2002), 친구지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과 자기유능성이 높으며(Dubow & Tisak, 1989; Dubow et al., 1990), 학교적응력이 높다(강종훈, 2000; 이지연, 2002)는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는 장애부모 아동이 부모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 높이 지각하고, 사회적 지원은 낮게 지각하며,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일반사회의 인식을 일반아동과의 비교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아동의 학교적응 및 사회적 지원의 인식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으로 부모의 장애여부 자

체보다는 아동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의미하는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모든 아동이 심리·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적응적인 유능한 사회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리적 탄력성을 길러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하고, 부모, 교사 및 친구로부터 보살펴지고 사랑 받고, 존경과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게 함으로써 학교생활을 만족스럽게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부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실천적 요구를 제시해준다.

주제어 : 자아존중감, 부모관련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학교적응

참 고 문 헌

- 강민희(1998). 여성 장애인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종훈(2000).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선진(1999). 교통사고에 의한 장애발생 현황 및 복지지원 방안 연구. 논문집, 13, 203-213.
- 김경화(1999). 장애여성의 육체와 정체성의 형성. 한국여성학회지, 15(2), 185-217.
- 김광영(1999).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원인분석. 순천향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혜(1999). 아동의 자아존중감 관련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해(2002).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비교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주(1996). 가정환경, 학교적응, 학업성취와의 관계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정·심희옥(2001). 아동의 친한 친구와의 관계와 자아지각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4), 99-113.
- 민하영·유안진(1998).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아동학회지, 19(2), 77-96.
- _____ (1999).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처행동이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9), 1-12.
- 박현순·이훈진·조용래·원호택(1993). 교통사고 장기입원 환자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심리과학, 2, 50-71.
- 배숙진(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미(2001).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승아·이양희(2001). 장애아동가족의 복원모델 연구. *아동학회지*, 22(2), 113-132.
- 유복귀회(2003). 아동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민하영(2001).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 *아동학회지*, 22(2), 133-147.
- 이경(2004). 초등학교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행동 및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아·정현희(1999).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2), 213-226.
- 이미옥(2000).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이 장애의 심리적 극복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형·이강이·성미영(2000). 초등학교 저학년 시설아동의 입소원인 지각에 따른 초기 학교적응의 차이. *대한가정학회지*, 38(11), 181-191.
- 이지연(2002).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의 관계와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욕구. 동덕여자대학교 여성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희순·이영(1990). 시설아동의 학문적 자아개념과 귀인성향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1(1), 100-114.
- 전재천(2000). 초등학교생의 집단 따돌림과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병태(1998). 가정불안과 학교태도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영(1990). 부모가 시각장애자인 청소년들이 지각한 가족체계상호작용유형과 사회적응형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진(2002). 초등학교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윤주(2003).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원과 자아존중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유림(2001).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미현·유안진(1995).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4), 49-64.
- _____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Ainsworth, M. D. S. (1982). Attachment: Retrospect and prospect. In C. M. Parkes & J. S. Hinde(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p. 331). New York: Basic.
- Bates, L., Luster, T., & Vandenbelt, M. (2000). Factors related to social competence in elementary school among children of adolescent mothe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in New Orleans, LA.
- Berndt, T. J. (1999). Friends' influence on students' adjustment to school. *Educational psychologist*, 34, 15-28.
- Bolger, K. E., Patterson, C. J., Thomson, W. W., & Kupersmidt, J. B. (1995).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children experiencing persistent and intermittent family economic hardship. *Child Development*, 66, 1107-1129.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New York: Basic.
- Brenner, A. (1984). *Helping Children Cope with Stress*. Massachusetts D. C: Health and Company.
- Brockner, J. & Hulton, A. J. B. (1987). How to Reverse the Vicious Cycle of Low Self-Esteem: The importance of attentional focu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4, 564-578.
- Brom, D., Kleber, R. J., & Hofman, M. C. (1993). Victims of traffic accidents: Incidence and prevention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9, 131-140.
- Campbell, S. B. (1990). Self-esteem and the clarity of the self 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ampbell, S. B., Cohn, J. F., & Meyers, T. (1995). Depression in first-time mother-infant interactions and depression chronic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3), 349-357.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ohen, S. & Wills, T.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Eds.), *Children's status in the peer group*(pp.17-5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mpas, B.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3), 393-403.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and Company.
- Dickstein, E. (1977). Self and self-esteem: Theoretical founda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research. *Human Development*, 20, 129-140.
-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social problem-solving skill.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Dubow, E., Tisak, J., Causey, D., Hryshko, A., & Reid, G. (1990).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of stressful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Contribution to children's behavioral and academic adjustments. *Child Development*, 62(3), 583-599.
- Gecas, V. (1971). Parental behavior and dimensions of adolescent self-evaluation. *Sociometry*, 34, 466-482.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ocial Support Scale for Children*. Denver: University of Denver.
- Harter, S. (1989).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A life span perspective. In J. Kolligian and R. Stenberg (Eds.), *Perceptions of competence and incompetence across the life span* (pp. 67-97).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Helena, M. K. & Lucy A. (2003). The physically disabled woman's experience of self.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5(19), 1132-1139.
- Heller, K., Swindle, R. W., & Dusenbury, L. (1986). Component social support processes: Comments and integration.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54(4), 466-470.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ee, D. (2000). Lessons of Suddenly Being Disabled. *Professional Safety*, Nov. 1999: 36-37.
- Newcomb, A. F. & Bagwell, C. L. (1996). The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children's friendship relations.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pp. 289-32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fferty, Y., & Shirn, M. (1991). The impact of homelessness on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46(11), 1170-117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 J.
- Rosenberg, M. (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hy(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pp. 205-246).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Simons-Morton, B. G. & Crump, A. D. (2003). Association of Parental Involvement and Social Competence with School Adjustment and Engagement Among Sixth Graders. *Journal of School Health*, 73(3), pp. 121-127.
- Thoits, P. A. (1985). Social suppor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oretical possibilities. In I. G. Sarason & B. P. Sarason(Eds.),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pp. 51-72). Hague, Netherlands: Martinus Nijhof.
- UN(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5. 12. 31 접수; 2005. 02. 12 채택)